

요즘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성교육 의무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사업장의 보건 담당자들이 이에 대한 홍보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고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건강한 성(性)의 이해

## -기독교와 성폭력-

성 상담 전문위원  
심 창 교

### 들어가면서

기독교에서 여성에 관한 입장은 무엇인가? 해방인가 아니면 억압인가?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여성을 부정하고 열등한 존재로 보면서 남성에 의한 여성의 종속성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다. 사실 기독교는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가부장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여성의 성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부정한 것, 혐오의 대상으로 본 시기로서 종교 개혁 이전까지의 시기요, 다른 하나는 종교 개혁 이후로 여성을 부정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보는 대신 남성에 의한 여성의 종속성을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로서 정당화하고 강화했던 것이다.

### 1. 여성 혐오사상의 역사와 전개과정

우리가 아는 대로 인류 최초의 공동체는 모계사회였다. 이 모계사회에서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 월경이 신비의 대상으로 외경화되었다.

그러나 BC 1000년경부터 모권 중심적 신화 체계에서 남성 지배적 신화 체계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신화가 남성지배 체계 신화로 바뀌면서부터 여성의 성이 낮은 위치로 전락하게 된다.

기독교의 창조 이야기인 창세기는 그나마 고대 근동종교의 모권 중심적 신화의 자취들을 짙그리 지워버렸다. 자연종교, 풍요의 여신 종교는 공격의 대상이 될 뿐이고 인간 창조는 철저히 가부장적 신화의 성격으로 말해지고 있다. 이 창조 이야기에서 유추하여 기독교 역사는 여성의 성을 열등한 것으로 말해 왔으며, 타락 설화를 근거로 여성의 종속 정당성을 부여하였고 여성을 악의 기원으로 만듦으로 여성을 혐오하고 부정하도록 이끌었다. 이제

여성의 성 자체가 부정하게 되고 터부시 된 채 여성은 가계 계승의 도구로서 재산의 하나로만 그 가치가 인정될 뿐이었다.

이런 상태가 BC 4세기까지 이어진다. BC 3세기경부터는 여성의 성에 대한 부정성과 열등사상을 표출한 유대전통이 헬레니즘의 이원론과 결합하면서 여성 - 육체, 남성 - 영혼, 정신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에 의해 여성의 억압이 더욱 가중된다. 이제 육체를 가진 여성은 곧 악의 화신으로 취급받는다.

성 어거스틴조차도 여성은 남편에게 종속되고 출산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제 교회의 현장으로 가보자. 이러한 사상과 역사의 과정 속에서 여성은 성폭력의 피해자로 남게 되었으며,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적 범죄라는 것이 인식되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 2. 목회자의 역할

### 1) 열려 있는 주제가 되게 해야 한다.

많은 사람에게 교회는 행동과 사고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다. 이들이 성폭행 등의 개인적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목회자는 신뢰할 수 있는 자원 중 한 사람이며, 때로는 유일한 자원이 되는 수도 있다. 목회자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심각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신앙적 위기를 맞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성폭행의 피해라는

개인적 위기에 몰린 신도가 목회자를 찾는 것을 주저하거나 회피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라는 경험은 피해자에게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낙인 찍히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행하게 교회에서도 이런 태도를 볼 수 있다. 사회적 태도가 서서히 변화해 가는 조짐도 있긴 하지만 피해자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성폭행 피해와 관련하여 불신앙, 비판, 교회로부터의 배척, 지지와 이해의 부족 등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의 교회가 성폭력에 관하여 입에 담아서서는 안될, 받아드릴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성폭력 상담에 대한 신뢰를 주어야 한다.

피해자가 목회자의 도움 얻기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목회자가 성폭력이라는 독특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식과 감성, 그리고 경험 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목회자가 남성인 경우 문제의 인식과 문제를 대하는 감수성에 있어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저와 회피를 벗어나 성도의 성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성폭력 문제를 교회 내에서 특히 목회자에게 이야기 할 수 있고 또 목회자는 이 문제를 다루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하고 전달해야만 한다.

이러한 전달은 설교, 성인 청년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강간 위기 센터 등의 광고나 행사 안내 등을 교회 내에 부착하면서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의지와 계획을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3) 상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성폭행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전문화된 지식이 필요하다.

우선 성폭행의 피해자나 가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성폭력이라는 이슈에 대해 편한 마음을 갖고 거부감을 스스로 없애야 할 것이다. 때로 듣고 싶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내용을 포함한 경험과 부딪혔을 때 당황하지 않아야 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에 관한 자기의 태도, 일반적 느낌, 그리고 연관되는 각종 경험들을 침착하게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목회자는 성폭력이라는 문제에 대해 확실한 의식과 태도를 가짐으로서 문제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고 다음의 행동을 준비할 수 있으며 분노, 구역질, 불신, 불편함 등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 4) 성폭력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성폭력을 당한 후 피해자는 자기들이 받아들여지고 아직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을 것이다. 피해자의 말을 경청한 후 이러한 확신과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에는 피해자 혹은 가해자와의 최초의 만남에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우선 성폭행이 일

어난지 48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다른 기관들(위기 센터, 경찰, 의료기관)과 접촉하지 않았을 경우에 목회자는 위기상황 개입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성폭행이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왔거나 피해자의 과거의 한때에 일어났을 경우에 목회자의 역할은 위기상황 개입이 아닌 다른 역할, 즉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현재적 필요와 그 사람의 삶에 성폭력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평가를 우선하는 것이다. 다른 위기 대처 자원들과 접촉이 있는 후에는 목회자의 관심은 이러한 자원들이 다루지 못하는 문제들, 특히 영적, 종교적 영향 쪽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 5) 지역사회 자원들과 함께 일하기

성폭력 문제 등을 대처하는데 있어서 이 문제를 다루는 지역사회 기관 등과 종교 기관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상호 불신의 태도는 의사소통의 부족 때문에 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갈등 때문에 피해자가 사회봉사 기관과 교회로부터의 도움 중에서 양자 택일을 해야하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 이 두 기관은 자원들을 공유하고 봉사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목회자들이 강간 위기 센터에서 훈련을 받아 실제적인 문제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강간 위기 센터의 스태프나 자원 봉사자들은 목회자들에게 훈련을 받아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토로하는 종교적 문제들과 관심사에 감수성 있게 대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또 상호 위탁 협정 같은 것을

만들어서 목회자들은 위기 상황 상담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강간 위기 센터로 위탁하고 위기 센터에서는 종교적 질문의 상담을 위하여 목회자에게 위탁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목회자들은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교육 등에서 사회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으며, 성도들로 하여금 위기 센터에서 자원 봉사자로서 참여하도록 권유할 수도 있다.

#### 6) 지역사회 자원들에 대한 정보

위기 상황에서의 혹은 지속적인 협조체계의 구축들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들과의 접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그 지역사회에 어떠한 사회봉사 단체 혹은 기관들이 성폭력 문제에 직·간접으로 종사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이다.

편지나 주소로 문의하고 그들의 안내 소책자들을 받아보는 물론 가능하면 직접 방문하여 그 기관의 스태프로부터 직접 그들이 어떠한 봉사들을 제공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이 좋다.

성폭력 피해자나 가해자를 전문 상담 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또 신뢰하는 특정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회의나 훈련, 워크숍 등을 통하여 상담기관의 스태프나 자원 봉사자들을 만나 알고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피해자나 가해자를 직접 특정 상담요원에게 위탁함으로써 그들에게 편안함과 확신을 주게 되어 상담이나 방문이 순조롭게 될 수가 있다.

### 3. 종교적 관심과 목회의 문제

성폭력 피해자들은 정신적 갈등이나 위기 뿐 아니라 신앙적 위기에 봉착하기도 한다. 그들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믿음의 극복과 치유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임무이다.

#### 1) 죄책감과 수치감

일반적으로 교회는 혼외 성관계를 죄악시하고 있다. 우리는 성폭력을 한 인간의 인권 침해로 규정하기보다는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하고 성관계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치심과 좌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2) 절망감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가치를 절하하고 죄책감에 빠진다. 신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야 한다.

#### 3) 분노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것이 공통된 피해자의 감정이다. 이 분노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화시켜 주어야 한다.

#### 4) 용서

피해자가 기독교 성도인 경우 가해자에 대한 태도나 감정은 매우 혼란스럽다. 특히 가해자가 성도인 경우 고소할 것인지 용서를 해야하는지……. 이때 목회자는 용서의 참된 의미를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